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사 41:8-16)

Do Not Fear; Do Not Be Dismayed

(Is. 41:8-16)

본문 14절은 “버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아”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개역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렁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렁이는 그냥 밟아버리면 그만입니다. 밟힌다 해도 방어할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지렁이처럼 나약한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늘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두려워하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습니다. 무언인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처절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모든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갖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전능하신 용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10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도, 뒤쫓아 오는 애굽의 철병거 소리에도, 골리앗의 괴성에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마침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 같이 만들 것이라”(15절).

버리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시니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변했습니다. 능력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18절).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만 불러주셔도 뭇 뜻이 기쁘는데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이라고 부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벗이라 불러주시는 그 친밀한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역경을 이겨나가므로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text in the verse 14 begins with “O worm Jacob and O little Israel.” These words in the reformed Bible are written as “you Jacob like an earthworm.” What kind of strength does an earthworm has? If we step on earthworms as they are, that is the end of all. Though they are stepped on, they don't have any strength and ability to defend.

Just like this earthworm, weak human beings live their lives with a sense of unease that we do not know about family, children, relation and future.

There is no fight to take a victory by fearing. If we have something to fear, we have already been defeated. Fear makes our life extremely sad. The fear seizes all liberty. Nevertheless, it is not easy for us to be bold and prudent. As a matter of fact, when we raise only one thing, our eyes of faith, look up to Jehovah, and look at almighty God who created the universe, almighty hero who fights for me, and eternal love of God who loves us to the death, we are able to be brave. When we listen to his word and it becomes alive in our hearts, we can release the fear at last and be bold and prudent.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v, 10).

God says that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We need not fear in front of the rolling red sea, the war chariot sound of the Egyptian army that chased after, and even Goliath's horrible shriek. Because God who is the greatest over the universe is with us and God who is a shepherd of soul protects us.

When fear goes against the relation with God, and we are far away, we are seized with fear. Consequently, that fear makes us paralyze.

“See, I will make you threshing sledge, new and sharp, with many teeth. You will thresh the mountains and crush them” (v.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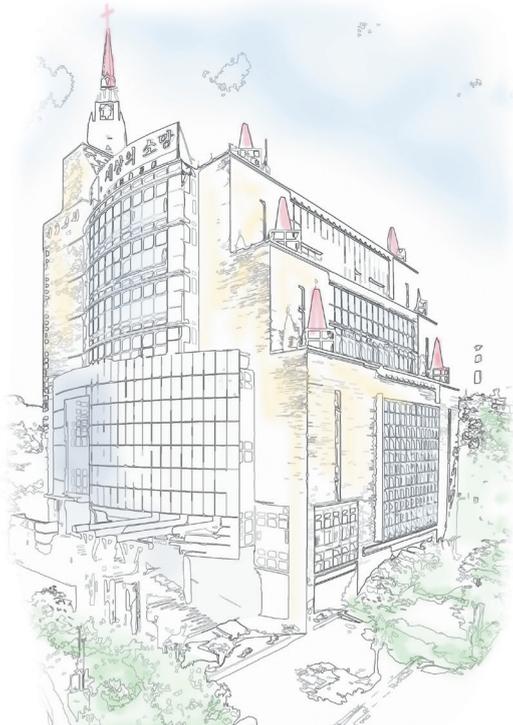
Since God was with Israel like worms, He held them with his right hand, they have been changed into new threshing sledge. They became the human beings who have ability.

My beloved Christians,
O Israel, my servant, Jacob, whom I have chosen, you descendants of Abraham my friend “(v. 8).

God calls us ‘my servants’. This can make us happy enough to be over the rainbow. Moreover, he calls Jacob whom I have chosen, you descendants of Abraham my friend.

Almighty Go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the Lord, Jehovah, we hope that we will hear the friendly voice of God who calls us friends.

And now, by making all fear disappear and overwhelming all adversity with the bold faith that is given us by God,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glorify only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2015 사명자대회 특별새벽기도회

11월 16일(월)~21일(토), 강사: 박노철 목사

지난 『VIP 초대 새생명축제』에 많은 결실을 맺었다. 『VIP 초대 새생명축제』에 VIP 방문은 351명이며 결신은 172명이다.

또한 24시간 자율기도에는 4,419명이 참석하였으며 릴레이 성경읽기는 19독을 진행 중이다.(11월 4일(수)기준)

특히 11월 16일(월)부터 21일(토)까지 새벽 5시에 시작하는 특별새벽기도회의 주제는 『아버지의 마음』(롬 8:15)으로 박노철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예배 시 - 성찬식 거행 / 찬양예배 시 - 추수감사절 감사찬양

11월 22일, 교회설립 24주년 기념주일 / 장로 임직식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다. 주일 I, II, III 부 예배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한다. 또한 추수감사헌금을 봉헌한다.

찬양예배시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대장: 양춘경 장로)의 절기 찬양이 있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

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기도한다.

11월 22일(주)은 교회설립 24주년 기념주일이며 장로 임직식이 거행된다.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기 바란다.

2016학년도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1월 12일(목) 오전 8시 30분, 101호: 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

대입 수능 당일인 11월 12일(목)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까지 웨스트 민스터홀에서 수능시간표에 따라 함께 기도하는 “수능 당일 학부모 기도회”가 있을 예정이다.

수험생 자녀들을 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사랑부 「제 9회 천사들의 음악회」

11월 15일(주일) 오후 2시 40분, 101호에서



사랑부(지도: 박영준 목사, 부장: 강성은 집사)는 『제 9회 천사들의 음악회』를 11월 15일(주일) 오후 2시 40분, 101호에서 갖는다.

하나님께 영광돌리기 위해, 악기 연주와 찬양을 드리며 전도의 장으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호산나대학 졸업생들

한정호 졸업예정자 법무법인 율촌에 취업



한정호 학생

호산나대학 졸업생들이 장애인들의 취업에 희망을 주고 있다. 올해 호산나대학 졸업예정자인 한정호(사무자동학과)군이 법무법인 율촌에 조기 취업 되었다. 이번 입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이 법무법인에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첫 사례다. 총무과에 배치된 한정호 군은 법원관련 서류정리나 우편물 분류, 데이터입력 등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정호 군의 취업에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호산나대학의 교육

목표가 뒷받침 되었다. 한정호 군은 수업과정을 통해 문서실무사, DIAT 워드, 엑셀,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도서관, 가평우체국, 호산나대학 행정실 등 다양한 현장 경험 및 학교에서 반복적인 모의면접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법무법인에서 일하게 되었다.

호산나대학은 한정호 군이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생, 부모, 회사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도 평생 보호와 면세의 대상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는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91)

(문 191) 유다서 9절 말씀은 비 성경적 자료가 아닌지요?

(답) 9절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구약성경에서 그와 같은 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은 오리겐에 의하면(On the principles 3.2.1) 지금은 잃어버린 모세의 승천(Assumptio Mosis)이라는 외경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라 하나 유다가 가정문구를 따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튼 이 같은 질문엔 문제가 있습니다. 영감된 말씀을 기록한 유다가 과거사를 기록할 때 반드시 구약에 있는 말씀만 기록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론입니다. 스테반(행7)과 예수님(마23)도 구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적 애기들을 언급하신 바도 있습니다.

아마도 신약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에게 정확한 구전(口傳)이 분명히 전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지도 아래 그들의 교훈 속에 완전하게 연결시켜 보고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요구한 것은 단순히 그를 능욕하려한 것인지, 그 시체로 구리뱀과 같은 우상을 만들려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땅의 권세를 가진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내어 놓으라 할 때 미가엘은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리라’(스 3:2)한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휘방하는 판결을 쓰지 않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귀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이러한 논쟁에는 하나님이 격분하시리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꾸짖으심만 바란 것입니다. 상대방을 욕하거나 조롱하지 않는 가운데 대적자와 기술적인 논쟁을 시도한 것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은 마귀와 더불어 논박하는 입장에 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마귀를 판결하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한 것입니다. 다만 모세가 모욕당하기를 원치 않아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 말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사악한 악령에 의해 악인의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천사장 미가엘은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서 9절은 성경 전체 흐름과 일치하며 계시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 주 계속)

만민에게 전도 - 의료선교

진리를 향한 관계



서병권 집사 (의료선교부)

지난 주일 11월 1일 아침 제법 차가운 가을 날씨 속에 의정부 신곡동의 '안디옥 열방교회'에 함께 모여 김종일선교사님의 기도모임 후 10시부터 선교회의 일이 시작되었다.



진료받을 터키 및 우즈베크에서 오신 분들은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며 피곤한 나날 중에도 교회의 3개월 전부터 홍보 덕분에 근처 및 각 지역으로부터 오셨으며 오후 진료 후 예배 종료까지 함께 하였다. 그들과는 소통 문제로 다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없었지만 주일 이외엔 쉬지 못하고 장시간 노동을 해야 한다는 그들의 모습과 눈빛을 통해 외국에서의 힘겨운 삶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안디옥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 광활한 제국의 시리아 지역을 분할 통치하던 셀류코스 장군의 부친인 안디옥1세 (안티오쿠스 1세)를 기리기 위해 만든, 무역이 활발한 국제도시였다. 초기 소수 기독교인들은 다수의 다양한 인종이 모인 안디옥에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세계로 실행하기 위한 선교의 중심지로서 전도를 위한 전방위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의 안디옥과는 달리 의정부의 안디옥열방교회는 여행을 하거나 외국기업에서 파견 나온 외국인이 아닌 불법거주로 인한 열악한 형편의 노동자들을 영적, 물질적으로 돌보며 전도하기에 더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오전기도모임 말씀에서의 '불가사리를 한 마리씩 되살리기 위해 바다로 던져 넣는다'는 비유와 성경 말씀 중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출22:21)'를 떠올리게 하는 김종일 선교사님과 가족의 헌신을 보며 상황을 타지며 '살리는 일' 보다 '일의 효율성'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서 의료선교를 바라본 것은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페인(서버나)을 세상의 끝으로 인식하고 있던 2천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복음

전파를 위해 세계 각 곳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 헌신하고 있으나, 사도행전의 2천년 전 초기 크리스찬과 성령님이 함께 한 행적에서 많은 이들이 힘과 위안을 얻고 있음을 그 분들은 과연 알 수 있었을까. 엄청난 시간의 브레인스토밍 또는 슈퍼컴을 통해 시뮬레이션을 하더라도 2천년 전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른 복음의 경로를 파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개명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400년 이후의 자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절대자에 대한 믿음 이외에 무엇으로 현재의 믿음과 이방 자손으로 이어짐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

2천년 전 안디옥의 교회와 신도들의 믿음이 이방의 나라 한국의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과 같이 현재는 척박하지만 의정부 '안디옥열방교회'의 열정적인 선교가 언젠가는 터키와 우즈베크의 어느 지역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른 복음의 축복과 그 곳에서 다시 퍼져 나가는 복음에 대해 경이롭게 말하며 선교를 준비하게 될 것임은 얕은 이성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후 진료 후 선교회원 및 진료받은 분들, 모두가 모인 작은 예배당에서의 김종일선교사님의 한국어, 터키어, 우즈베크의 3개 국어로 진행된 설교 말씀 중 누가복음 18:29,30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의 말씀이 이뤄질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의료선교의 설정된 목적대로 꾸준히 계획하고 준비하는 많은 분들과 진리를 향한 관계로 만나 함께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영자 권사
(11교구, 예곡도르)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 속에서 서울교회를 세우시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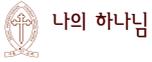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큰 아픔을 주시고
그 아픔을 통해
크고 비밀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왜"냐고 물을 수 없습니다.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희의 마음을 저미게 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하셨기에
오늘도 사명자의 자리에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상처를 꿰매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쁨으로,
시련을 감사의 노래로,
변하게 하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간절한 간구를 드립니다.
아멘





늦게 와서 미안해



서양지 집사
(3교구)

저희 시대는 기독교적 신앙 배경이 전혀 없었습니다. 첫째 형님네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당했고 그러던 중 친구의 전도로 2년 전부터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셋째 동서네는 결혼 20년차인데 동서가 15년 동안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심히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런 동서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동서의 병증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고 그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도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동서는 친절업마도 거부하고 술까지 가까이 하여 몸은 더욱 쇠약해져서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 없고 오로지 약 먹고 자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번 사명자대회를 시작하면서 영혼사랑의 마음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 가문에 믿는 자로 심겨져서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서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차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vip초대 사전방문을 위해 전화를 하였는데 약속을 잡으면 번번히 핑계를 대고 미루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무작정 집에 방문하였으나 집에는 들어갈 수 없었고, 집 앞 공원에서 세 시간 가량 이야기를 하였어요. 무조건 들어줬더니 많은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냈고 다음날도 공원에서 3시간을 이야기 하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저는 동서를 껴안아주면서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동서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사랑해” 라고 말하며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서로 손을 잡고 공회하의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동서를 데려가

기에 수월하도록 형님과는 미리 약속해 두었던 터라 안심하고 있었는데 당일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못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형님은 새벽까지 알바를 해서 힘들다고요. 그 소식에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여 교회로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 상처받은 영혼과 무너진 가정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밤늦게 집에 오는 중에 70인전도대 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평소 구령의 열정이 넘치는 분이라 동서에 대해 말하니 본인 역시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시며 아프고도 뜨거운 간증으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거기에 크게 힘을 얻어 형님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도 꼭 우리교회 오셔서 하나님 복음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자 즉각 알았다는 답이 왔어요. 다음날 동서 집 앞에 갔는데 역시나 싫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찻집에 가자고 차에 태운 후 기도하며 무조건 교회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발작할까봐 얼마나 두렵던지요. 그러나 동서는 순한 양이 되어 순순히 예배당에 들어갔고 중간에 호흡곤란이 와서 잠깐 밖에 나갔다고긴 했지만 괜찮아지자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여 목사님 말씀도 듣고 서명철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식당에도 올라갔습니다. 동서에게는 10년만의 외출이었습니다. 다음날 동서는 제게 자기에게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어 고맙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동서가 깊이 만나기를 기도하며 부족한 저를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젊은이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상투스찬양대(대장:김주연 집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김희정집사의 지휘와 김현지 성도의 피아노 반주로 “아름다운 세상과 (John Rutter)”, “축복하노라 (신상우)”, “A Jubilant Song (Joseph M.Martin)”을 찬양하고, 임종현, 박수련대원이 곡중 독창을 담당하며 오르가니스트 김윤지 성도, 첼리스트 박성민 성도가 함께 연주한다.

등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11월9일(월) 「새로운 한국을 위한국민운동 기독교평신도연합회」 회장단 모임을 소집한다. 11월10일(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회사 신우회 예배설교 한다. 11월13일(금)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 재플설교를 한다.

■ 개업: 13교구 박진호 집사 김수진 집사, 청담이상은마점, 강남구 도곡로 531(대치동) 02-555-2346

■ 득녀 : 임만석 성도 배경아 성도 가정 (임선철 집사 이영주 권사 장남 가정)

■ 금주의 식사 제공 : 송근화 성도 이남용 집사 가정 (고 최무순 권사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교회제공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새생명축제에 초대하기로 작정하였던 전도대상자(VIP)들을 2015 사명자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기도하여 전도할 수 있도록
2. 수험생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수능에 가장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3.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10월 24일(토) 2부봉헌원원은 강화도 평화전망대에서 야외예배를 드렸다.

2015년 피택자 당회 면접

2015년 피택자(장로) 당회 면접이 11월 13일(금) 오후 7시 202호에서 실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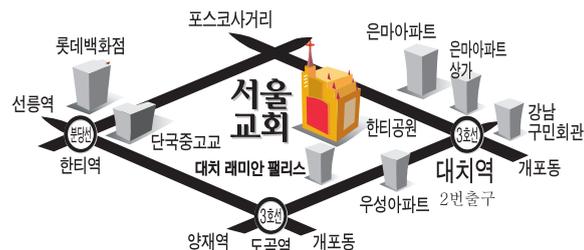
2016년도 신임 서리집사 교육 및 면접

- 교육(601호)
 - 1 차 : 11월 13일(금) 오후 7시
 - 2 차 : 11월 14일(토) 오전 6시15분
 - 3 차 : 11월 14일(토) 오후 6시
 - 면 접
 - 1 차 : 11월 13일(금) 오후 8시
 - 2 차 : 11월 14일(토) 오전 7시
 - 3 차 : 11월 14일(토) 오후 6시 50분
- 장소 : 1조 - 606호 / 2조 - 607호
3조 - 609호 / 대기 - 601호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영아동시동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